

## ■ 2026년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수필) 1차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수필 분과)
- 회의일시 : 2026년 1월 22일(목), 10:30~12:3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선화, 오형엽, 이성천, 장호병, 홍역선 심의위원

아르코 문학작가펠로우십 지원사업은 이전의 작품집 발간지원 사업과는 달리 문학계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작가를 집중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작지원금과 문학 현장에서의 후속 활동을 지원하는 등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선정 작가들이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작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아르코 문학작가펠로우십 지원사업 수필 분야에 지원한 총 61명은 그간의 활동 경력과 작품집 발간 경력을 중심으로 작성한 지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명의 지원심사 1차 심의위원들은 이 지원서를 중심으로 수필 분야에서 작가의 활동 경력, 수상 경력, 기간 작품집의 내용과 형식 및 수준, 향후 계획하는 수필 창작 작업의 현실적 성과, 잠재적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일정 기간 비대면 개별심사를 시행한 후 2026년 1월 22일(목)에 대면 협의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심의위원들은 비대면 개별심사에서 61명의 지원 대상작 전체를 창작 역량, 활동 계획의 적절성,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정성적·정량적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대면 개별심사의 결과를 토대로 예술가의 집에 모여 대면 협의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면 협의심사에서는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제척 및 회피 사항을 확인한 후 개별 심사위원들의 채점표를 취합한 통계 자료를 공유하면서 수필 분야의 2차 심의대상자들 선별하기 위해 심층적인 종합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차 심의위원들은 대면 협의심사 과정에서 특히 수필 장르의 작가적 역량과 문학적 성취를 포함해서 해당 장르가 내포하는 특이성으로서 수필가의 위상에 대해 논의했고, 서울과 지역, 중견과 신인, 등단에서 현재까지의 문학적 성취와 잠재적 미래의 가능성 등을 균형 있게 안내하고 종합적으로 논의하면서 최종 심사에 올릴 작가들을 결정하는 심의 진행 방식에 동의하고 이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수필가의 위상에 대한 논의는 전문 수필가의 수필, 시나 소설 등 타장르 문인들의 산문이나 에세이, 방송이나 언론계 등 타직종 인사들의 산문이나 에세이 등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전문 수필가의 수필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과, 경계를 엄두에 두되 결과물로서 수필의 작품성 위주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두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 조율과 숙의를 거쳐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차 심의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최종 지원심사 대상작을 선정했습니다.

1차 심의위원들은 문학계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작가를 집중지원하여 선정 작가들이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성장하고 세계적인 작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아르코 문학작가펠로우십 지원사업의 취지를 잘 살리면서 향후 이 사업의 지원 규모 및 지원 대상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심의위원 일동